「해피뉴이어」와 우리 덕담

2차대전이 끝나고 미군이 진주한 지 얼마뒤의 일이다。필자가 근무하던 한글학회 연구실에 사병 한사람이 나타나 불평어린 어조로물었다。

『굿모닝 (good morning)에 해당되는 한국말이무엇이냐? 백사람에게 물었더니 천가지 다른 대답이 나와서 종잡을 수 없기에 왔다』는 것이었다。

사실 「굿모닝」에 해당되는 한국말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다。왜냐하면、우리말에는 영어에 없는 존비칭(尊卑稱)의 구별이 있기 때문이다。

영어는 어른에게나 손아랫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쓸수가 있지만、우리는아랫사람에게는「해라」를、친구에게는「하게」를、어른에게는「합쇼」를、그밖에는 사람에 따라서 「하오」 또는「반말」등을 쓰게 되기 때문이다。

淨化特輯

영어의 새해인사인「해피 뉴 이어(Happy New Year)」도 마찬가지다。그에 해당하는 우리말을 한마디로 집어내기는 어렵다。그러나 우리나름대로의 고유인사 형식이 있었음은 물론이다。다만 세상의 변천에 따라 인사법도 달라졌을뿐이다。

그러나 새해인사를 말하기전에、우리 조상들의 언어생활에 대한 인식을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생각된다。

우리의 조상들은 언어에는 신령(神靈)한 힘이 있다고 믿는「언령관념(言靈觀念)」을 가지고 있었다。이러한 관념은말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된다는 조심성을 가지게 했으며、언어 음성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그 속성(屬性)과 길흉을 따지는 노력을 기울이게했다。

우리조상들은、이를테면 홑소리(母音)에 양성(陽性)、중성(中性)、음성(陰性)의 세 부면(部面)이 있다고 생각했다。양성은 길(吉)하다、좋다、맞있다、빠르다、가늘다、약하다、작다 등의속성이 있다고 생각한데반하여 음성은 흉하다、나쁘다、맞없다、느리다、굵다、강하다、크다등의 속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

아침 맨처음 들은소리가 그날의 심기를 좌우하듯이、그해 맨처음들은 좋은 말은 그 일년의 운수를 좌우한다고믿는 청참관념과、한번내뱉은 말은 신령한 힘으로 이 결과를가져오리라고 믿는 언령관념이 어울려서 덕담을 낳게된 것이다。

……

예를들어보면、고개를끄덕일때에 어린아이는「까닥까닥」한다고 표현이되고、어른은「끄덕끄덕」한다고 표현이 된다。그리고 어감으로 보아「까닥까닥」은 작게 느껴지고「끄덕끄덕」은 크게 느껴진다。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구분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고 하니、조상들의 뛰어난 슬기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다。

위에서 말한 언령관념은 언어에는 신령한힘이 있어서 한번 뱉아진말은 그냥 사라져버리는것이 아니라、반드시 음으로 양으로 어떤 결과를낳게 된다는 믿음을 뜻한다。그리고 이러한 관념이 덕담(德談)을 낳게 한 것이다。

덕담은 남의행복、발전성취、득남(得男)、성관(成冠)、회춘(回春)、재수등을 빌기위해 하는 말인데、표현방법은 현재완료형(現在完了形)으로 하고、그 위에 감사하는 말로 끝맺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덕담은 결코 웃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들려주는데 국한된 것은 아니다。아랫사람이 웃사람에게도 할수 있다。해묵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노인이 있다면、「어르신네 환후가 금년에 깨끗이 완쾌되신다니 감사합니다。」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예사다。

……

한두가지의 예를 들어보자。

조선중기에는、조혼 풍습이 있어 15~16세면 혼인을 치르는 것이 예사였다。그 시절에 30이념도록 장가를 들지못하면 낙오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이런 사람에게 정초에 들려줄 덕담이라면、장가들라는말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덕담을 정초에 들려주는 이유는 정초에 좋은 말을 들어야 그해 신수가 내내 좋다는 청참론(聽讖論)에 연유한 것이다。아침에 일을 나와 「歲在戊辰萬事如意亨通」이라고 漢字로 써 붙이고 1년내내 쳐다보고 있을수는 없다.

○… 「해피 뉴 이어」를 대신할 우리말을 한마디로…○
○…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 의 고유인사형식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다만 세…○
○… 상의 변천에 따라 인사법도 달라졌을 뿐이다。 …○
○… 한 갑 수／한글학자 …○

靈觀念)이 어울려서 덕담을 낳게된 것이다。그리하여 『네가 올해는 장가를 들게 되었다는구나 고맙다。』이런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과거에 응시해서 번번이 낙방(落榜)을 거듭한 젊은이가 있다면、그런사람에게 들려줄수 있는 덕담은 『자네가 올해는 대과(大科)에 장원급제를 하게되었다니 고마우이!』이런식이어야 한다。

덕담은 결코 웃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들려주는데 국한된것은 아니다。웃사람이 아랫사람에게도 할수 있다。해묵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노인이 있다면、『어르신네 환후가 금년에 깨끗이 완쾌되신다니 감사합니다』이 되는 것이 예사다。정초에 동네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랑방에놀러갔을 경우에는 서로서로、『올에는 대풍이라니 경사로세』와 같이 자축하는 덕담도 있었다。

……

여러세기를 전해내려오는 덕담이 요새와서는 경향을 막론하고 사라진지 오래다。그렇다고 그런 표현을 대신할 새 인사법이 생겨난것도 아니다。일정한 표현법이 없다보니、서양흉내를 내는 웃지못할 인사법이 날로 보편화되어가고 있어 통탄을 금할수 없게한다。

그래서 필자 나름대로 새해 인사법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가장 바람직한 새해인사를 말하라면、필자로서는 예로부터 전해내려온 덕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곧、덕담을 소생시키는 광복이다。그러나 필자가 40여년 동안 우리말을되살려보려고 힘써왔으나、그 섬과는 미미했다는점에서、그러나 새로운 방향의 시안에는 적지않게 반응을 얻었다는 점에서 재래의 덕담에 대체할만한 새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듯하다。

광복후、「안녕」이란인사말이 널리 쓰여지기시작해서 지금은 자리를잡아가고 있다。「안녕」이란 인사말이 뿌리를 내릴수 있었던 것은 존비칭 구분에 구애치 않았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보고 싶다。곧、안녕해라 안녕하게、안녕하오、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옵소서등의 구분을 두지않은 것 같다。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학생에게 써도좋고、학생이 선생에게 써도좋다。그뿐이랴! 만날때인사도 되고、작별인사도된다。「안녕」같이「토」도 없고、「씨끝(語尾辭)」도 없어야 두루 쓰일수 있다는 이야기다。

옛날에는 새해 덕담으로 입춘때 천장에다「세재무진만사여의형통(歲在戊辰萬事如意亨通)」이라고 한자로 써붙이고 1년내내 쳐다보고 지내도록 했었다。그러나 오늘날 어찌 이런 한문 덕담을 쓸수야 있겠는가? 또 그뜻을 우리말로 고쳐서、「새해 무진년에는 모든일이 뜻대로 형통하소서」하자 해도 길어서 쓸모가 없다。

그렇다면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굿모닝」이 되겠는가? 「굿모닝」은 「좋은 아침」이라는 뜻이니 「좋은 아침」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러세기를 전해내려오던 이런 덕담이 요새와서는 경향을 막론하고사라진지 오래다。그렇다고 그런 표현을 대신할 새 인사법이 생겨난것도 아니다。일정한 표현법이없다보니、서양흉내를 내는 웃지못할 인사법이 날로 보편화되어가고 있어 통탄을 금할수 없게한다。

그래서 필자 나름대로 새해 인사법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가장 바람직한 새해인사를 말하라면、필자로서는 예로부터 전해내려온 덕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곧、덕담을 소생시키는 광복이다。그러나 필자가 40여년 동안 우리말을되살려보려고 힘써왔으나、그 섬과는 미미했다는점에서、그러나 새로운 방향의 시안에는 적지않게 반응을 얻었다는 점에서 재래의 덕담에 대체할만한 새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듯하다。

광복후、「안녕」이란인사말이 널리 쓰여지기시작해서 지금은 자리를잡아가고 있다。「안녕」이란 인사말이 뿌리를 내릴수 있었던 것은 존비칭 구분에 구애치 않았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보고 싶다。곧、안녕해라 안녕하게、안녕하오、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옵소서등의 구분을 두지않은 것 같다。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학생에게 써도좋고、학생이 선생에게 써도좋다。그뿐이랴! 만날때인사도 되고、작별인사도된다。「안녕」같이「토」도 없고、「씨끝(語尾辭)」도 없어야 두루 쓰일수 있다는 이야기다。

옛날에는 새해 덕담으로 입춘때 천장에다「세재무진만사여의형통(歲在戊辰萬事如意亨通)」이라고 한자로 써붙이고 1년내내 쳐다보고 지내도록 했었다。그러나 오늘날 어찌 이런 한문 덕담을 쓸수야 있겠는가? 또 그뜻을 우리말로 고쳐서、「새해 무진년에는 모든일이 뜻대로 형통하소서」하자 해도 길어서 쓸모가 없다。

그렇다면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굿모닝」이 되겠는가? 「굿모닝」은 「좋은 아침」이라는 뜻이니 「좋은 아침」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새해 인사로 큰맘먹고 「행복한!」하고 외쳐보자。행복한 가정、행복한 새해、행복한 내일은 모든 표현을 함축한 말로생각하면서 쓰면 되는 것이다。

……

행복한 새해、행복한 가정、행복한 가족、행복한 직장、행복한 사업、행복한 살림、행복한 내일、행복한 일년、행복한 미래、행복한 운명등 모든 표현을 함축(含蓄)한 말로 생각하면서 쓰면 되는것이다。

다만 관형어(冠形語)다음에 꾸밈을 받을 말을 빼고 말해본 일이 없으니 얼른 이상하게 생각되겠지만 써보면 여운(餘韻)이 남는 것을 느낄수가 있을 것이다。

「안녕」하는 인사가 지금은 거의 자리를 굳혀가지만 그런 언어표현법은 일찌기 없었다。「안녕하다」란 말에서 안녕은 뿌리(語根)에서 지나지 않는다。「안녕하」와 같이「하」라는 뒷가지(接尾辭)가 붙어 줄기(語幹)를 붙이면 줄기 끝에 어미(語尾)가 붙어 쓰이는데、뒷가지도 씨끝도없이 그냥안녕만 쓰기시작했는데、지금은 저항감 없이 쓰이고 있다。

새해인사로 큰맘 먹고 「행복한!」하고 외쳐보자。웃사람、아랫사람 구별없이 써보자! 몇해아니가서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날이 올것이다。이렇게 우리말의 약점을 보완해가며。

〈정화지 2000년에서 발췌〉

連載 栽培教室

88新規會員을 爲하여

모 = 母 (知 = 知)

○學 名 : Anemarrhena asphodeloide Bunge
○生藥名 : 知母 Anemarrhenae Rhizoma
○成 分 : Asphonin 6%, sarsapogenin markogenin margiferin isomangiferin 등을 함유한다。
○効 用 : 強心、利尿藥、消炎、解熱등에 쓰임。

1、性 狀

耐寒性과 草勢가 강한 여러해살이 풀이다。根莖은 누어뻗고 잔털이 많다。잎은 길고 좁으며 根莖의 基部에서 모여서 생긴다。5~6월경 120~150cm내외의 꽃대가 나오고 긴이삭꽃차례(長穗狀花序)로 자주색의 꽃이 드물게 밑에서부터 피어 올라간다。씨꼬투리는 둥근끝로 씨앗은 검전한 發育을 하기 때문에 한 것이 특징이다。氣候는 재배할 수 있으나 中南部地方에서는 재배하는것이 유리하다。土質은 물빠짐이 잘 되는 壤土 또는 砂質壤土가 적당하다。

知母는 生活力이 강해서 걸찬 밭이 아니라도 山間의 開墾地 또는 草地등을 이용하여 栽植할 수 있다。따라서 連作을 하여도 별로 해롭지 않으나 地力 消耗가 심하므로 輪作을 하는것이 좋고비교적 많은 肥料를 시용할 것이다。

知 母

2、栽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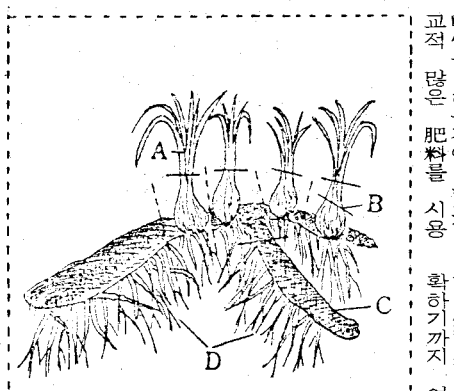
1) 栽培適地

知母는 草性이 맹우강한 것이 특징이다。氣候는 건전한 것이 좋고 土質을 가리지않고 잘 자라는 것이 특징이다。

2) 採 種

채종할때는 2~3年生의 無病 健實한 포기만을 별도로 선택하여 通風과 햇볕이 잘 쏘이는 東南向의 밭에다 심는다。밭거름은 헝편에 따라 잘썩은 堆肥、깻묵、닭똥등을 이용하여 이랑사이 45cm、포기사이 24cm내외로 심는다。

한편 본밭에 定植한 후 2~3年生의 건실한 포기에서도 채종할 수 있다。채종할 것 이외의 것은 꽃대를 잘라버리는것이 좋다。



知母 分根法
A ; 제거부분 B ; 종 근
C ; 약용부분 D ; 뿌리제거

3) 繁 殖

번식은 播種法과 分根法의 두가지가 있다。

씨앗으로 번식하게 되면 生育期間이 늦어서수확하기까지 여러해가 걸리므로 될수있으면 뿌리를 나누어심는 것이 수확을 빨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으로는 두가지 繁殖法을 이용하여 不足한 수량을 增産하는데 注力할 것이다。

㉮播種法 : 따뜻한 地方에서는 가을에 씨앗을뿌리기도 하지만 보통3월 하순~4월중순경에 파종한다。본밭에 씨앗을 바로 뿌릴 수도 있지만 土地 利用 上 분리하여 苗床에서育苗 移植하는 것이 유리하다。본밭 10a에 대하여 苗床은 0.3~0.5a을 선정하고 밑거름은 잘 썩는 堆肥、人糞尿、깻묵등을 사용한다。

볼에 播種한 苗床의 두둑은 150~180cm의 넓이로 하고 이랑사이 30cm정도로 하여 얕게 골을 치고 씨앗 4ℓ를 뿌린후 15mm쯤 흙을 덮고 그위에다 짚을 깔아주어 保湿되게 하고 빗물에 흙이 굳게 덮었던 짚을 걷어주는 것이 좋다。수시로 中耕 除草를 하여 주고 극히 약한 곳이 아니면 별로 [illegible]을 것 없이 그대로 育成시킨다。

보통 밭흙의 苗床에서는 밑거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1년동안은 웃거름할 것 없이 잘 썩이며 다음해부터 잘 썩은 人糞尿를 물에 묽게 타서 2~3회쯤 活用하는 것이 좋다。씨뿌린후 2~3년째 가을에 定植한다。

㉯分根法 : 수확한 根莖중에서 病蟲害를 입지않고 건실한 포기를 선택하여 싹눈을 3~5개쯤 붙여 심는다。

根莖을 나눌때는 날카로운 칼로 잘라서 상처는 草木灰로 처리한다。

심는 시기는 가을과 봄에 심을수 있으나 中部地方에서는 씨뿌리를 나누어 심는 것은 越冬하는 동안 잘린곳이 凍害를 입어 피해가 많으니 오히려 봄에 일찍 심는것이 좋다。

南部地方의 따뜻한 곳에서는 봄에 심는것보다 가을에 심는것이 유리하다。본밭에 심는 방법은 다음의 표와같이 밑거름을 주고 밭을간다음 1 50cm정도의 두둑을 짓고 이랑사이 45cm、포기사이 18~20cm의 간격으로 한 낱씩 놓고 흙을 3cm정도 덮어 가볍게 밟아준다。

知母의 施肥量 (10a 당)

거름종류	전 량	밑거름	웃거름 1회(5月中)	웃거름 2회(9月中)
두 엄	800kg	800kg	kg	kg
과 석	40	40		
초 목 회	60	60		
인 분 뇨	800		400	400

〈3면으로 계속〉